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

20대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정체성 변화와 적응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서혜민

20대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 정체성 변화와 적응

지도교수 박 혜 준

이 논문을 생활과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서 혜 민

서혜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20대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정체성 변화와 적응을 살펴본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20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이들의 성장과정 경험을 살펴보고, 성장과정에서 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떠한 보호요인들이 이들의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게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에서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2】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게 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답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을 통해 목적표집방법과 눈덩이표집방법으로 20대 청각장애인 8명을 연구 주 참여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에게 일대일 면접과 포커스 그룹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청각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건청인 어머니 12명을 연구 부참여자로 선정하여 일대일 면접과 포커스 그룹 면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여러 차례 숙독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코딩 작업을 거친 후 범주화하고, 범주화 과정에서

발견한 영역들을 포괄하여 중간 분류제목과 대 분류의 제목을 찾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들은 병리적인 진단을 통해, 또한 성장과정에서의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전 생애에 걸쳐 발달과업을 이루면서 건청인들과는 조금 다른 정체성에 관한 고민들을 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며 성장하였다.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외로움과 불안함을 안고 성장해 왔으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족, 학교, 직장, 관계 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변화하였다.

둘째, 연구 주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장애가 있는 결핍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사회 참여자로 살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차원의 요인들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었는데,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자신만의 전략, 긍정적인 마음, 보조기구의 활용, 수화의 사용 등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대학진학 및 졸업과 같은 학업에서의 성취, 일반학교와 직장에서의 경험, 적극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변화를 받아들이고 활용한 점 등이 있었다.

주요어 : 청각장애인, 정체성 변화, 적응, 보호요인

학 번 : 2011-23703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5
1. 청각장애에 대한 관점과 청각장애인의 이해	5
1) 청각장애에 대한 관점	5
2) 청각장애인의 특성	10
2. 전생애 발달 관점과 정체성	14
1) 전생애 발달 관점과 정체성	14
2)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16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9
1. 연구 참여자	19
2. 연구방법 및 절차	25
1) 연구방법	25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8
1. 비가시적인 장애로서의 청각장애	28
2.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34
3. 정체성의 변화	51
4. 긍정적인 적응 요인	54

V. 결론 및 논의	68
1. 연구의 결론	68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71
참고문헌	76
Abstract	85

표 목 차

[표 1] 청각장애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	21
[표 2] 어머니 연구 참여자의 특성	24

I. 서론

1. 문제제기

인간은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발달하며 변화한다. 인간의 전 생애 발달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는 정체성이다. 정체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와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 형성되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되고 변화한다.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발달 단계를 단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성장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소리로 소통하는 이 세상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청각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소리로 소통하는 건청인들이 주를 이루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경험에 있어서 건청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정체성의 형성과정에서 건청인들과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청각장애인은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정답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혼미를 경험하기도 한다(박혜림 외, 2015). 또한 이들은 경험하는 자아에 대한 존재의 본질과 함께 청각장애라는 특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공존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발달한다(송혜경 외, 2014; 최성규·김수향, 2011). 청각장애인은 성장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또 다시 혼란을 겪는 등 지속적으로 정체성에 대해 고민, 탐색하며 이를 통해 성장하며 변화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을 이해

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에 따르면 발달 중인 사람은 여러 환경체계의 중심에 들어있고, 부모, 학교, 또래집단,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발달한다. 그 중에서 부모는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주체자로 여겨지며, 이들은 자녀가 가족 밖의 세상에서 상호작용하는 기초를 마련해준다. 또한 자녀가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는 평생에 걸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 환경 역시 인간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부모와 학교가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청각장애인이 부모와 학교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달해가는 국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교육부 2014 특수교육 통계에 의하면, 학령기 청각장애학생의 약 72%가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교육부, 2014), 통합교육 현장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교육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살펴보는 국내의 연구 역시 부족하다.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대부분 직업과 취업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청각장애인의 청각 손상에 집중한 의료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연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청각장애인 개인의 특성, 성장과정, 정체성, 적응 과정 등과 같이 개인의 발달에 집중하여 이해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최근에는 청각장애인을 의료적인 관점과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통합한 상호작용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의

장애아 가족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장애아 가족의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와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연구가 많았다(이규옥 외, 2010). 이에 청각장애인에 관한 연구도 대부분 결함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청각장애를 해석하는 연구이며, 개인의 강점을 강조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점중심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강점중심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몇몇의 연구가 있지만, 이들의 연구는 부모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경험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Park & Chung, 2015).

인간 개인의 삶에 관한 연구를 위해 최근에는 Bronfenbrenner (1979)의 개인(person)-과정(process)-맥락(context) 모델이 사용되는데, 이는 한 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에서부터 시작하여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환경을 포함하는 미시적인 체계를 거쳐, 문화와 국가, 사회적인 맥락을 포함하는 거시적인 체계로 확장되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Harney, 2007).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제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과정-맥락 속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이해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성장과정에서 어떻게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요인들을 통해 이들이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인들이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경험

을 직접 들어보고 이를 분석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와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게 한 보호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건청인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경험과 학교생활, 가정생활 등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게 한 보호요인이 되었는지, 어떠한 지원과 관심이 이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에서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을 발달시기별로 나누어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으며, 기억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고민하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고 변화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게 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청각장애인들의 성장과정에서 어떠한 경험들이 이들의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청각장애인들의 삶에서 어떤 요인들이 탄력성으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봄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청각장애에 대한 관점과 청각장애인의 이해

1) 청각장애에 대한 관점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기존에는 크게 이분법적으로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해 왔다(Oliver, 1990; 김진우, 2010). 그러나 두 모델을 서로 대립시키는 이분법적인 이론적 틀은 장애를 적절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편주의적 모델이 등장하였다. 이 장에서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 그 관점들이 청각장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의료적 관점

개인적 모델은 장애에 대한 지배적인 이론으로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이 문제의 원인을 기능적 제약이나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손상에서 찾는다(Oliver, 1983; Brunzy, 1997). 개인적 모델을 의료적 관점, 재활 모델, 비극적 관점, 병리학 관점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장애인을 ‘손상’을 가진 사람들로 여기고, 이러한 ‘손상’은 비장애인의 사회에 합류하고 적응하기 위해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Thomas, 1982).

청각장애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정의는 개인적 모델을 적용한 ‘청각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료적 관점이다. 의료적 관점에서 청각장애는 상대적으로 심한 정도인 ‘농(deaf)’에서 가벼운 정도

인 ‘난청(hard of hearing)’에 이르는 청각의 손실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로 ‘청력 손상(hearing impairment)’을 강조한다(Padden & Humphries, 1988). 또한 청각장애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의 장애이며, 청각 경로에 장애를 입어 말과 음을 잘 듣지 못하는 상태로 본다. 기존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의료적 관점에 입각하여 청각장애인은 청력 손상 그 자체로 인해 자기중심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강하는 등의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Marschark, 1993; Stinson & Antia, 1999). 청각장애를 결함중심으로 인식하는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관점은 아직까지 의료 및 교육의 전문가들이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은 장애가 치료를 요하는 개인들의 의료적 상태들도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Gabel, 1997)는 점, 사회적 맥락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Jones, 1996; Oliver, 1998)는 점, 결함과 장애의 혼동으로 인해 생물학적 결함이 사회적 결함을 가져온다는 관점으로 귀결된다(Oliver, 1998)는 점, 그리고 장애인과 전문가의 관계가 의존적으로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으며 한계를 드러낸다.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함의 보완과 치료적인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심리기능 발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 모델이 등장하였다.

(2)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사회적 제약들에 의해 장애가 생산된다는 입장을 나타낸다(Oliver, 1989; Shogan, 1998). 또한, 장애를 정의하는 내용과 방식에는 장애가 하나의 현상

으로서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Jones, 1996; Oliver, 1998).

장애아동의 장애문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 및 접근은 러시아의 발달 심리학자이며 특수교육자인 Vygotsky의 이론이 1980년대에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신중호, 2001). Vygotsky는 장애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장애문제는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격리 또는 차별을 최소화하는 교육체제여야 한다고 보았다(Vygotskaya, 1999). 또한 사회적 환경이 아동의 심리발달을 적절히 자극하지 못한다면, 환경의 결핍으로 인한 이차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반대로 개별적 기능이나 기관이 정상으로부터 이탈했다 할지라도 필요한 사회적 도움과 환경을 제공받는다면 전체적인 발달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Knox & Stevens, 1993; Vygotsky, 1993). Vygotsky(1993)는 장애아동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장애는 생물학적 결손 자체이기보다는 제한적인 사회경험과 차별적인 사회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기능적인 결손이라고 보며, 지금까지 특수교육 연구들은 장애아동의 결손에만 연구의 관심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Oliver(1983)는 사회적 모델을 장애인 이 살아가는 물질적 세계에, 그리고 장애를 유발하는 사회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또한 Oliver(1990)는 ‘장애는 비장애인들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삶에서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그 시대의 사회조직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모델은 청각장애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문화적인 관점으로 변형되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관점은 청각장애인을 문화적, 언어적, 소수 민족 집단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Van Cleve & Crouch, 1989; Parasnis, 1997; Parks, 2009).

1950년대 중반 Stokoe(1960)에 의해 미국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

는 미국수화(American Sign Language)가 언어학적으로 주목 받으면서 청각장애인들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집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는데, Stokoe(1960)는 청각장애인을 장애인 혹은 교정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문화적 소수집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Stokoe, Casterline & Croneberg, 1976). 이를 통해 1960년대부터 청각장애를 하나의 문화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Padden, 1998), 이후 지속적으로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의료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Woodward(1990)는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차이는 청각기준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라고 하였으며, Reagan(1990)은 청각장애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청력손실의 정도가 아니라 청각장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청각장애인의 생활방식과 같은가, 다른 청각장애인처럼 행동하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Padden(1998)은 청각장애인을 청각장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언어와 문화, 전통을 공유하면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Lane(1992)은 사회문화적 관점은 언어적·문화적 다양성 가운데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관점으로 보았다.

사회문화적 관점은 수화를 사용하지 않고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청각장애인들이 배제되면서 다양한 청각장애인의 개별적 삶이 간과되고 이들에 맞는 서비스와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이에 청각장애인 내부의 다양성을 포괄하면서 개별적 욕구에 맞는 지원을 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박정현, 2012).

(3) 상호작용 관점

장애에 대해 이분법적인 분류를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고려하는 보편주의적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다(Zola, 1993). 보편주의적 모델은 신체·심리·사회모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타협을 나타낸다(WHO, 2012). 보편주의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를 고정화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각각 개인과 환경에 접근하여 개인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개인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교정하는 전략이 포함된다(Stucki, 2005).

청각장애에 대한 보편주의적 모델의 적용은 상호작용 관점으로 변형되어 논의될 수 있는데(박정현, 2012), 이 관점에 의하면 청각장애는 개인에 내재되어 있는 신체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의되어지고 유지되는 사회적 역할이 된다(Foster, 1989). 상호작용 관점에서는 청력의 결함과 손상은 존재하지만 장애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책임이 공유된 것으로 이해된다(Foster, 1989; Young, Green, & Rogers, 2008). 이 관점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개인의 손상과 결함을 치료 및 회복하여 사회적응을 하도록 하거나, 손상을 장애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 관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부족하고 현상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상호작용 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박정현, 2012).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중 상호작용 관점으로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한다.

2) 청각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장애 유형별로 범주 간의 차별성이 존재하고, 같은 장애인 범주의 내부에서도 다양성과 이질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장애인 내부의 독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Oliver, 1990). 특히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과 같은 감각장애는 그 내부에서 이질성과 개별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데, 시각 손상 아동의 경우 이질성과 개별성은 시력, 시야의 범위, 색깔 뿐 아니라 아동의 지능, 성격 또는 기질, 전반적인 발달의 정도, 학습에 대한 동기, 시각 손상의 원인, 시각 손상의 정도와 시기, 시력의 변화 양상, 부모나 교사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한성희·박혜준, 2004). 이와 마찬가지로 청각 손상을 입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내부에서 개별성과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청각장애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청각장애란 신체의 감각기관 중 소리를 듣는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가 손상을 입어 소리를 듣는 결함을 지니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다양한 정도를 포괄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구 수는 273만 명이며, 장애 출현율은 5.59%로 인구 10,000명 중 5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전체 장애인 중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불리는데,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두 청각장애인 또는 농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의사소통 양식에 따라 수화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을 농인이라고 하고, 말하기와 독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을 구화인으로 부르기도 한다(김현주, 2003). Moores(1987)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농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청력손실이 있는 경우이며,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만으로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말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청력이 남아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농(deafness)은 청력손실로 인하여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 난청(hard-of-hearing)은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각으로 언어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잔존 청력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청각장애는 또한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거나 잔존 청력이 있다 하더라도 소리만으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농이라 하고, 보청기와 같은 기구의 도움으로 잔존 청력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를 난청이라 한다. 농과 난청을 모두 포괄하여 청각장애로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 농인, 난청인, 농아인, 구화인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청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 비가시적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외형적으로는 건청인들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흔히 ‘보이지 않는 장애’, ‘숨겨진 장애’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감각기관의 장애인이지만 청각장애인은 시각에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에 비해 생활현장에서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된다(Lane, 1988; 이준우, 2004). 청각장애는 청각이 손상된 일차적인 장애와 함께 보이지 않는 장애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차적인 장애를 동반한다. 청각장애인은 청각손실의 정도, 발생 시기, 자각 시기, 그리고 청각손실의 원인에 따라 개인 간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보조 장치의 사용,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교육 환경에 따라 청각장애인들 간의 사회적응 방식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Gibbons, 2015).

(2)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아동은 들음을 통해 언어 기능을 획득하게 되는데, 언어 기능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받아들이고,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학습하고, 부모와 동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청각의 문제는 아동의 언어와 사회·정서 발달 영역과 학교에서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atshaw, 2002).

청각장애인은 주로 구화, 독화, 필담, 수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청각장애인이 모두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력의 손실 정도, 교육, 환경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한다. 청각장애인은 청력손실에 의해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세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사고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지체 될 수 있다(김성하, 1999). 청각장애 중에서도 수화를 사용하는 농인은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수준 정도의 읽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간단한 문장 조차도 정확히 쓰기가 어려우며, 상대방의 입술 모양이나 움직임을 보고 말을 하는 것도 극히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2003). 청각장애인은 사회적·행동적 문제는 없으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의사소통의 제약을 받으므로 자신을 타인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등의 심리적 불안을 갖는 경우가 많다(김미옥·이미선, 2013).

최성규(201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수화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부모의 수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는 청각장애학생들로 하여금 농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으며, 부모의

수화 능력은 농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청각장애아동의 90% 이상이 수화가 아닌 구화 중심의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받고 있으며(최성규·강태인, 2000), 부모는 인공와우 착용을 통한 구화교육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박귀메 외, 2004). 또한 부모가 건청인인 청각장애 자녀들은 구화를 주된 의사소통양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김경진, 2006; 오인혜·정은희, 2011). 청각장애아동의 부모들은 대부분 건청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음성언어와 제스처로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실제 60% 이상이 부모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청인 부모들은 수화라는 의사소통 방법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고 음성언어에 치중하고 있으며 수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자녀들은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조문교, 2010). 청각장애자녀들의 언어적 결핍이라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질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늘리고 청각장애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필요가 있다(최성규·김선희, 2005).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Moschella(1993)와 Hole(2004)의 연구에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지에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였다. 청각장애인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자신을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느냐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2. 전생애 발달 관점과 정체성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발달이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 된다는 관점에 중심을 두고,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전생애 발달 관점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전생애 발달 관점과 정체성

전생애 발달 관점은 인간 발달이 수정에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생애 동안 이루어진다는 발달 심리학적 관점이다(Salthouse, 2009). 전생애 발달의 기본 전제는 정신적 기능, 사회적 관계, 그리고 기타 인간 본성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 생애 전체를 통해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전생애적 관점은 발달 심리학자들의 시각의 변화와 현대 사회의 현상과 함께 최근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고전적 발달 이론과는 다른 전제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

Paul Baltes는 전생애 발달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데, 전생애 발달을 8가지 특징으로 요약하였다(Baltes, 1987, 1997). Baltes에 의하면 발달은 인생 전체에 걸쳐 일어나며, 다차원적이고 다방향적이며, 기소성이 있고, 다학제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발달은 맥락적이고, 성장, 유지, 쇠퇴를 포함하며, 유전과 환경, 그리고 개인의 공동 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릭슨은 인간 발달을 출생에서 죽음까지 다룬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인간 발달을 총 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이루어야 할 심리사회적 과제가 있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특정한 갈등과 위기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에릭슨

은 인간발달을 전 생애적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생물학적 요인 외에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인간발달의 각 단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고자 했다(이순형·성미애, 2012).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가장 보편적인 질문을 하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겪는다. 정체성은 복잡한 개념인데, Baumeister(1997)는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설명하였고, 많은 학자들은 자기에 대한 발달은 각 사람의 현재와 과거 경험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아동의 가족과 가족 경험,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Chen, 2014).

자아정체감이란 에릭슨이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그는 자아정체감에 대해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의식적 지각이자 성격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이며, 동시에 집단구성원과 이상, 이념을 공유하고 결속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에릭슨은 자아정체감이란 어느 특정 순간에 등장하거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에릭슨의 발달단계 중 특히 5단계는 ‘정체감 및 정체감 혼미’ 단계인데, 이 시기는 새로운 사회적 압력이나 요구에 대응하게 되는 시기이며, 아동기부터 나타난 자아 정체감을 통합하고 재편성하여 새로운 주체적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자기존재에 대해 새로운 의문과 탐색을 시작하게 되며, 자신의 위치나 능력,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기에 대한 의식과 확신을 형성하게 된다.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자기일관성을 획득하게 되지만 실패하면 자아 정체감의 혼란이 생기며 중심적이고 안정된 핵심이 결핍된 자기상을 갖게 되며, 무력감, 허무감, 소외감을 경험하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절한 안정감을 찾지 못한다.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해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는 James Marcia인

데, Marcia(1980)는 위기와 수행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위기란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재평가하고 의미 있는 선택안을 숙고하는 단계이며, 수행은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내린 단계이다. 마샤는 위기와 수행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을 4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위기도 없고 수행도 없으면 정체감 혼미, 위기는 없지만 수행이 있으면 정체감 유실, 위기는 있지만 수행이 없으면 정체감 유예, 위기도 있고 수행도 있으면 정체감 확립으로 분류하였다.

2) 청각장애인의 정체성

청각장애학생도 청소년기에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물음에 답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에 비해 더 역할혼미가 더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청각장애학생의 정체감은 보편성과 특수성으로 구분된다. Solomon(2012)은 청각장애아동의 발달 패턴을 수평적 정체성(horizontal identity)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세대에 걸쳐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수직적 정체성(vertical identity)과 대조되는 특성이며,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통해 개인이 습득하며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의 자아정체성은 건청인 학생이 경험하는 자아에 대한 존재의 본질과 함께 청각장애라는 특성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공존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발달한다(최성규, 김수향, 2011; 송혜경, 김정규, 박찬영, 2014). 많은 연구자들은(Leigh 외, 1998; Bat-Chava, 2000; Mitchell 외, 2004; Chen, 2011) 가정환경이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을 발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를 하였다. 가정환경은 건청인 부모가 자신의 청각장애인 자녀를 바라보는 태도, 청각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방식, 부모의 청력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한다.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되어져 왔는데, 대표적으로 Glickman과 Carey(1993)의 연구가 있다. Glickman(1993)은 소수자 정체성 발달 이론의 틀로 농 정체성 발달 이론을 만들었는데, 농 정체성 이론은 농인이 농인 문화와 농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동일시를 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념화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Glickman은 농 정체성을 청인중심 정체성, 주변 정체성, 몰입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분류하였다.

Bat-Chava(2000)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세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청각 장애인들을 문화적으로 청인인 정체성, 문화적으로 농인인 정체성, 그리고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Hole(2004)은 Melick의 농정체성 이론을 정리하였는데, Melick의 이론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자신을 처음에는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로 인지하고, 다음 단계는 청각장애인 공동체에 노출이 되면서 ‘만남, 연결’의 단계로 이어지고, 그 후에는 청각장애인의 세계로 ‘이행’되며,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 자신이 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며 타인이 자신을 아웃사이더라고 느끼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기 인식’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한다.

Kunnen(2014)은 청각장애학생과 건청 학생의 정체감 형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4세에서 18세 사이의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Kunnen은 청각장애 학생의 자아정체감은 건청 학생보다 빨리 정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청각장애’라는 현상에 대한 조기의 정체감 형성이 건청 학생보다 빨리 나타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Dalton(2011)의 연구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은 자아 정체감 형성에서 혼란을 경험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준우(2003)가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농 정체성의 특성 살펴보았으며, 농 정체성 연구가 농인 관련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준우(2003)는 우리나라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은 매우 혼란스럽고 분명하게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과 전반적으로 농 정체성의 수준이 낮음을 밝혔다. 또한 주변 정체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진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 청소년에게 청각장애에 대한 균형적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이중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 정체성 전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측정된 척도로는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청각장애인들의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가 개발되어야 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이 20년이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성장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고,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들이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청각장애 관련기관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장애아 가족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목적표집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선정된 연구 참여자가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하는 눈덩이표집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목적표집방법은 모집단에 대한 연구자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표집하는 방법이며 연구자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구 목적에 적합한 사례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눈덩이표집 방법은 처음에는 소규모의 응답자 집단으로 시작하여 다음에는 이 응답자들을 통해 비슷한 속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표집방법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가 청각장애 관련 학교와 복지관 등에 연락을 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기관의 관계자가 기관에 있는 청각장애인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연구 참여자 모집에 대해 알리고, 이에 동의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청각장애인의 경우 현재 일반 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대학생활 또는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20대 청각장애인으로 선정하였다.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경우, 현재 자녀가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기이며, 이혼을 하지 않고, 부모지지모임 또는 같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다른 어머니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을 연구의 주(main)참여자로, 어머니들

을 부(sub)참여자로 구분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인은 총 8명, 어머니는 총 12명이었다. 연구의 주 참여자는 서울, 인천, 부산, 천안에 살고 있는, 현재 대학생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8명이었으며, 부 참여자는 서울에 위치한 장애 관련 복지기관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머니 2명, 청각장애인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공식적인 부모지지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 8명,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각장애인의 어머니 2명이다.

면접한 참여자들의 특성은 다음의 <표1>과 <표2>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가명 및 번호 사용하였는데, 주 참여자는 가명을, 부 참여자는 번호로 구분하였다

<표1> 청각장애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

이름 (성별)	나이 개인적인 특성	청각장애 진단(발생 시기, 원인, 보장구) 사용언어	가족관계와 특성
1 박하늘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다님 - 현재 일반 직장 다니며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 때 열병으로 청각장애 발생함 - 청각장애 2급 - 보청기 사용하고 있음 - 음성언어와 수화 모두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형 - 가족 구성원 모두 건청인
2 이나라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세 -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일반학교를 다니다가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함 - 현재 수화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음 - 일반 대학교 진학 후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자퇴한 경험이 있음 - 청각장애인과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짐 - 청각장애 발생원인은 미상 - 청각장애 2급 -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불편하여 빼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음성언어와 수화 모두 사용함 - 음성언어보다는 수화를 더 많이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 가족 구성원 모두 건청인
3 최예은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다님 - 현재 대학교에서 신학 전공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리더로 활동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때 원인미상으로 청각장애 발생함 - 청각장애 2급 - 보청기 사용하고 있음 - 음성언어와 수화 모두 사용함 - 구화가 가능하나 주로 수화를 사용하여 대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언니, 남동생 -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은 건청인이며, 언니는 청각장애인임

	이름 (성별)	나이 개인적인 특성	청각장애 진단(발생 시기, 원인, 보장구) 사용언어	가족관계와 특성
4	최성은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다님 - 일반대학교에서 디자인 전공함 - 현재 직장에서 행정일 담당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짐 - 청각장애 발생원인은 미상 - 청각장애 2급 -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음 - 음성언어와 수화 모두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은 건청인이며, 여동생은 청각장애인임
5	정하나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다님 - 현재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전공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짐 - 청각장애 발생원인은 미상 - 청각장애 2급 - 인공와우 수술함 - 음성언어와 수화 모두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언니, 여동생 - 가족 구성원 중 아버지, 어머니, 언니는 건청인이며, 여동생은 청각장애인임
6	김명성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다님 - 대학교에서 신학 전공하였음 - 현재 대학원에서 신학 전공하고 있음 - 청각장애인 모임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세 때 열병으로 청각장애 발생함 - 청각장애 2급 - 보청기 사용하고 있음 - 음성언어와 수화 모두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 가족 구성원 모두 건청인

	이름 (성별)	나이 개인적인 특성	청각장애 진단(발생 시기, 원인, 보장구) 사용언어	가족관계와 특성
7	조사랑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다님 -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전공하였음 - 현재 직장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함 - 청각장애인 모임에 참여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세 때 원인미상으로 청각장애 발생함 - 청각장애 2급 - 보청기 사용하고 있음 - 음성언어와 수화 모두 가능하는데 음성언어를 더 편하게 사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현재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음 - 가족 구성원 모두 건청인
8	서은혜 (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일반학교 다님 - 현재 대학교에서 미술 전공함 - 청각장애인 모임에 한번도 참여한 적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짐 - 청각장애 발생원인은 미상 - 청각장애 2급 - 보청기 사용하고 있음 - 음성언어만 사용함 - 연구 참여자 중 유일하게 수화를 사용하지 못하며 청각장애인 친구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 어머니, 오빠 - 가족 구성원 모두 건청인

<표2> 어머니 연구 참여자의 특성

	번호	자녀 나이	장애 발생 시기	발생원인	보장구	가족 사항	자녀와 사용언어
포커스 그룹1	1	29	선천적	돌발성 난청	보청기	남편 2녀	음성언어 수화
	2	19	2세	원인미상	인공와우 보청기	남편 1녀	음성언어 수화
포커스 그룹2	3	17	1세	열병	보청기	남편 2남	음성언어
	4	18	3세	불확실	보청기	남편 2남 1녀	음성언어
	5	18	10개월	원인미상	인공와우	남편 2남	음성언어
	6	15	선천적	원인미상	인공와우	남편 2녀	음성언어
	7	17	선천적	원인미상	인공와우	남편 1남	음성언어
포커스 그룹3	8	15	18개월	돌발성 난청	인공와우	남편 1남 2녀	음성언어
	9	20	5세	돌발성 난청	보청기	남편 2녀	음성언어
일대일 인터뷰	10	21	선천적	원인미상	보청기 인공와우	남편 3녀	음성언어
	11	13	선천적	원인미상	인공와우	남편 1남	음성언어
	12	27	선천적	원인미상	보청기	남편 1남 2녀	음성언어

어머니 연구 참여자 중 10번은 청각장애인 연구 참여자인 정하나의 어머니이며, 12번은 최예은과 최성은의 어머니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인이 어떤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삶에 적응하고 변화하였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또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심도 있게 해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일대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청각장애인 연구 참여자의 경우 2명에 대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6명은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어머니 연구 참여자의 경우 눈덩이표집방법을 사용해서 표집된 3명에게는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9명에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거나 사회적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Ferrell, Grant, Funk, Otis-Green, & Garcia, 1997),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 간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과 신념, 다양한 경험과 반응을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다(Kitzinger, 1994). 낯선 연구자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연구 참여자들 간에 어느 정도의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낯선 연구자와 개별적으로 나누는 이야기보다 더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인터뷰가 이루어질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어머니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있어서 유사한 경험이나 정서적인 친밀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연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또한 청각장애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경우 연구자와 음성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이해되지 못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수화를 사용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며, 이에 인터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모든 인터뷰는 2015년 4월과 5월,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자 한 명 당 면접시간은 약 2시간 이내로 이루어졌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연구 참여자를 소개해준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 전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어색함을 완화시키고자 노력 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모든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는데,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온 전반적인 성장과정에 대한 질문과 학교 및 가족 내에서의 경험, 대인관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어머니들에게는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과 자신의 삶에 대한 고찰 등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포함되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능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한 후 연구자가 모든 자료를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가 자료를 여러 차례 숙독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코딩(coding) 작업을 거친 후 범주를 도출하였고, 자녀의 특성이나 가족의 맥락 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범주를 도출하였다. 범주화 작업이 끝난 후, 범주화 과정에서 발견한 영역들을 포괄하는 중간 분류제목을 찾고, 다시 중간 제목을 포괄하는 대 분류의 제목을 찾았다(Spradley, 1980).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순환적인 성격을 보이는데(전가일, 2013), 이 연구에서도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해석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분류체계를 완성하였다. 구술내용을 다른 여러 연구들과 비교하여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특히 연구 주 참여자인 청각장애인들이 성장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이들의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룰 수 있게 탄력적으로 작용한 보호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와 해석의 주(main) 구술자는 청각장애인이며, 부(sub) 구술자는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건청인 어머니들이다.

1. 비가시적인 장애로서의 청각장애

청각장애를 논할 때 청각장애는 ‘보이지 않는 장애’로서 이에 따른 이차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장애라고 한다.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건청인들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지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김미옥(2002)의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사회적 거리감을 비교한 연구에서 보면, 비장애인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각장애인의 손상된 청각부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의 청각의 손상은 간과 되어지기 쉽다.

1) 오해와 이해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에 의하면, 주위 건청인들은 이들이 청각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각 손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망각하거나 크게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집단에서도 이들의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이기 때문에 이들을 장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일반인도 아닌, 장애인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거나 여러 오해의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였다.

일반 사람들한테도 청각장애인 같지 않다고 오해를 받아요. 맨 날 네가 청각장애인 인 것을 깜빡한다고 말하는 걸 많이 들어요. (조사랑)

애네들은 애매한 게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도 아니예요. 애매한 장애인이에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왜냐하면 걸은 다 멀쩡한데 단 한 가지 귀만 안 들려서 살아가는 건데, 장애인들 쪽에서는 너네가 무슨 장애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장애는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장애예요.(어머니10)

청각 애들은 선생님들이 아무 손이 갈 일이 없는 거야. 통합을 나왔어도 착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발달도 아니고...그러니까 정상인에서 끼지도 못하고, 장애인 측에서도 너가 뭐 청각 장애인이나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서 낀 장애인이야 완전히.(어머니4)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인 청각장애가 주된 원인이었다. 이들은 특히 이들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자주 받게 되었는데, 자주 오해를 받다보니 청각장애인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리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처음부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꾸준히 오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등학교 때 친구랑 지하상가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점원이 제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진 못 들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점원이 화를 내고 있고 제 친구가 찢찢 매고 있더라구요. 알고 보니까 점원이 제가 무시했다고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랑)

처음에는 친구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대요. 한 친구가 말을 걸었는데 제가 안 들리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중략)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딱 밀치면서 ‘너 왜 나 무시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널 무시한 게 아니라 안 들린다고. 나를 부르려면 쳐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해 했어요.(최성은)

한번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구인가가 자꾸 저를 쳐다보다가 왜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혼자 화장실 갔는데 그 친구가 따라와서 갑자기 제 멱살을 잡고 무슨 일인지 물랐는데..(중략)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가 저를 불렀는데 제가 안 들리니까 무시하는 줄 알고 그래서 멱살을 잡고 그런 당황한 적이 있어요. 제가 평소에 얌전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가 잘 안 들리는 걸 몰랐어요. 한번 얘기 해 본 사람은 제가 안 들리는지 알고 대화를 안 해보면 몰랐어요.(이나라)

장애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들의 존재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며, 또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을 자신들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다.

애가 청각장애면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장애니깐 잘 모르잖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조사랑)

건청인들이 이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청각장애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후련해요.(최성은)

2) 소통의 단절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삶에 참여하게 된다. 인간은 말을 하며 불평, 칭찬, 환영, 질문, 알림, 찬양, 칭찬, 논쟁, 요구, 주문, 보챌, 초청 등을 하게 된다(Batshaw, 2002). 또한 인간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생활하는 존재이다. 의사소통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인데,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의사소통의 장애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접근성에 큰 걸림돌이 되어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구서진, 2006). 사회에서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분리되고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큰 외로움, 소외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가끔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대화하면서 웃을 때 나만 모르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이나라)

제가 직장에서 들은 얘기가 저는 주변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모여서 얘기하면 모르지만 작업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그냥 입모양 이런 거 안 봐도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보다가 모르니깐 그냥 제 일을 하는 거예요. (조사랑)

Olivia(2004)는 청각장애를 가진 동료가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혼자 있는 사람들(solitaries)”라고 표현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무인도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장애인이지만 비가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여겨지지 못하며, 반면에 일반인이 될 수도 없는 청각장애인들은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혼자 된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

음을 알게 되었다. 지나친 배려와 관심은 부담이 되지만, 이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심하게 대하는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이들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애들은 교실에서 무인도에 있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헤민이 언제 애기의 표현이. 이 청각이 그래요. 보기에는 멀쩡한데 본인의 마음이 가장 아프대요.(어머니6)

아이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 같이 웃을 때 혼자 무슨 내용인지 몰라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 속상했습니다. (중략) 마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느 쪽의 세계에도 낄 수 없는 제3자..이방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사랑)

3) 불안한 마음

보조기구를 착용하면 어느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언젠가 자신이 보조기구를 착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소리를 구분해 낼 수 있고 건청인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청각이 더 나빠져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최근에 생각한 게, 이명이 오면 보청기를 꺼도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나마 보청기를 끼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고 전화 통화도 가능한데 계속 이러면 어찌나.. (중략)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는데...(조사랑)

청각장애인 구술자 중 한 명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님이 연로해 지시고 이로 인해 그들의 입모양이 달라져서 구화로 계속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불안해진다고 하였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수화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수화를 배워도 그것을 계속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본인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불안해하였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수화를 배워도 다 잊어버리시는데, 부모님이 늙으면 입모양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대화를 할까 고민이 돼요. 부모님이 늙어서 대화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기도 하고. (이나라)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함을 가졌는데, 교사들과 친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고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건청인 친구들보다는 어렵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과 함께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학업이 뒤떨어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나만 이렇게 뒤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박하늘)

4) 정보의 부족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이 동일하게 언급한 부분은 청각장애인은 고집이 세다는 것이다. 어떤 것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에 대해서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사귀려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건청인은 일상생활에서 청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반면,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언어중심의 사회에서 정보에 늦은 반응을 하게 되고, 아예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김미옥·이미선, 2013). 참여자들은 청각장애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고, 소리를 듣지 못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신들이 보고 배

운 정보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항상 듣는 얘기가 완전 똥고집이라는 거예요. 약간 저만의 생각의 기준.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보의 단절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만의 세계가 조금 더 강해지면서 그게 고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고집불통이라고.(조사랑)

그 사람이 나랑 생각이 안 맞으면 농민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농아인들은 자기 생각이랑 다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대화가 완전히 끊겨요. 왜냐하면 농아인들은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정보를 잘 듣지 못하잖아요. 정보를 늦게 받고 늦게 알고 실수도 많으니까 두려움도 많고 자기중심적인 것도 많고 고집도 세고.. 농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서 온 것을 못 고쳐요. 농아인들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김명성)

애들이 건청인 것처럼 말도 하고 받아들이고 정보력이 그게 깎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내가 어렸을 때 청각장애 애들 중에서 큰 애들을 봤을 때 사고가 얼마나 개네가 자기가 보는 것들이 다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되게 강했어요.(어머니8)

2.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청각장애인이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시기와 발병 원인은 개인차가 있다.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각장애인도 있지만, 어린 시절 고열, 황달 또는 큰 소리로 인해 고막이 터지거나 원인을 모른 채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는 청각장

애인들도 있다.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을 당시 대부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며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었다.

1) 병리적인 진단

아동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종종 상당히 지연된다(Coplan, 1987; Van Naarden, Decoufle, & Caldwell, 1999).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청각장애를 자녀의 첫 번째 생일 전에 알게 된다. 오늘날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몇 시간에 후에 청각 기능을 검사하는 여건이 잘 되어 있지만, 자녀의 청각장애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대체로 2세 반경이다(Goldberg, 1996).

청각장애인 구술자 8명 중 4명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4명은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병원에서 명확한 원인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부모의 유전자 중 열성인자끼리 만나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추측할 뿐이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을 당시 자신은 어렸기 때문에 진단 받았을 때의 상황과 마음을 잘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머니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의 청각장애 진단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청각장애와 처음 맞닥뜨린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 구술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집안 병력에도 청각장애는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녀의 청각장애라는 진단은 큰 충격으

로 다가왔다고 했다. 자녀가 일반적인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할 때 자녀에게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게 되거나, 자녀가 이상 행동을 나타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이 지나면서 왜 그럴까 어느 순간 이상한 것 같아서 명호야 하고 불렀는데 소리에 반응을 잘 안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너무 어리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한 달 동안 계속 개를 관찰을 했죠. 식탁 밑에 들어갔을 때 ‘탁탁’하면 그거에는 반응을 하는데, 다른 때는 안하는 거예요. (중략) 의사선생님이 애는 난청이다 하는 거예요.(어머니3)

우리 언니 애를 키워봤거든요. 그런데 개하고 달랐어. 뭔가 달랐어. (중략) 잠 들었을 때 냄비 뚜껑을 두드려본다던가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어머니11)

나이가 먹어가면서 TV 볼륨을 높인다는 것 그것 밖에 없었어요. 어떤 때는 나랑 시장에 가면 애들이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면 뒤 돌아봐야 되는데 뒤를 안 돌아본다고 이상하다고 했는데.. 5살 후반기에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내가 자꾸 느낌이 이상해서 선생님, 우리 애 좀 지켜봐달라고, 한 달 후에 저랑 상담을 해달라고. 한 달 후에 딱 어린이집 교사가 어머니 느낌이 맞는 것 같다는 거야.(어머니 9)

어떤 어머니들의 경우는 양육경험이 있는 주위의 지인을 통해 자녀의 이상증상을 지각하여 청각장애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돌 즈음에 우리 시어머님이 한 여름에 맞바람 치게 문을 이렇게 다 열어놨는데 문이 쿵 닫혔는데 애가 전혀 놀라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애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양쪽이 다 농으로 나오더라구요. 검사 결과가.(어머니10)

우리 언니가 애를 셋을 키우는데 “재가 잘 못 듣는 것 같아. 재가 잘 못 듣고

감으로 자꾸 돌아보는 것 같아. 한번 검사 해봐”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어머니1)

주위에서 언니가 왜 소리에 반응을 안하지, 한번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그때 서야 알게 된거야.(어머니3)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된 청각장애인 구술자 4명 중 2명은 2세 때 고열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어 청각이 손상되었고, 너무 어린 나이에 청각장애를 갖게 되어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인 청각장애인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들렸다가 돌잔치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고열이 올라가면서 온도가 38.9℃까지 올라가면서 고막이 터진거예요. 고막이 터지면서 저절로 농아인이 된거죠. (김명성)

제왕절개해서 애를 낳았는데 퇴원하는 날 저를 부르더라구요. 애가 열이 되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인큐베이터에 있는거예요. 너무 고열이 심하다고. 황달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어머니3)

다른 2명의 경우 어린 시절 소리를 듣고 살아온 기억이 있었으며,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6살 때 TV를 시청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어느 순간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고, 또 다른 참여자는 할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력손실은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6살쯤 존경하는 외할아버지께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고 단지 신경성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로 진단을 받았습니다.(조사랑)

2) 스스로 깨달음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청각 손실에 대한 진단을 어린 나이에 받았으나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은 학령기 이후였다고 한다. 학령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으며, 또래들과는 언어적인 상호작용 보다는 신체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은 단지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거나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자신이 주위 다른 건청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부모에게 털어놓고, 부모들은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그들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거나 그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생활하였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학령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이들과 이미 몇 년에 걸쳐 이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 몸짓이나 신체의 움직임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같은 반 친구들이 함께 웃는 상황에서 함께 웃지 못 할 때, 교사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입모양을 잘 읽지 못해 교과 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 친구들이 자신에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선뜻 다가오지 않고 따돌리려 하는 상황 등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른 사람이랑 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원래 세상이 조용한 줄 알았어요. 나만 이상하다 생각해서 부모님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장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서은혜)

8살 때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구화를 배웠기 때문에 입모양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썼는데, 근데 제가 알던 입모양하고 선생님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이 척척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 내가 다른 애들이랑 다르구나’ 그때 느꼈어요. (최성은)

초등학교 4, 5학년 때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막 웃고, 왜 웃는지 모르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데 나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만 재미가 없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나라는 귀가 안 들려서 그렇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이나라)

한 어머니 구술자의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인 자녀가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마음속으로 긍정과 부정을 수없이 반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각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일반학교에서 건청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적응하게 되었다.

본인도 형하고 누나가 있고 일반인하고 같이 지가 묻어서 사니까 나는 청각이 아니고 나는 일반인이다 하고를 6학년까지 살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은 그렇게 자기가 일반인 속에서 그냥 나는 일반인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가 부딪히고 산 그제 참 마음은 아프더라고요. 나는 장애가 아니래요. 그걸 인지하는데 사실은 부정과 긍정과 이게 자기 마음 속에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도 부정하고 싶은..(어머니4)

3) 가족생활

① 부모와의 관계

청각장애아동의 95%는 청각손실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전혀 없는 건청 부모에게서 태어난다(Mitchell & Karchmer, 2004). 자녀에게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청인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손상된 청각을 치료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언어치료를 위해 언어치료실을 데리고 다니거나, 부모가 직접 발화 훈련을 시키기도 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방법을 찾아다닌다. 또한 자녀들에게 보조기구를 제공하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그들이 부모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들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은, 대부분의 건청인 부모들은 청각장애인 자녀들이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듣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고, 정작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좋은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은 그러한 부모의 태도에 대해 ‘안 들려보지 못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고 언급하며, 청각장애를 ‘신체적인 손실’으로만 보는 병리적인 측면에서만 이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건청인 부모들이

자녀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보청기도 착용했으니 이제는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너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청인 부모들은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녀들이 마음속에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아는 여자 후배가 부모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인공와우 괜찮냐, 잘 들리냐, 계속 매일매일 물어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겹잖아요. 다른 이야기 하고 싶는데 왜 그런 부분만 계속 얘기하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잘 들리냐 안 들리냐 하는 게 걱정이지.(김명성)

다른 부모님들을 보면 인공와우나 보청기를 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최성은)

우리 작은 애 하고는 1년을 싸웠어요. 귀에 양쪽에 걸어놓기까지.. 맨날 빼서 집어 던지는거야. 나 이거 답답해서 못하겠다는거야. 싫다고. 별 방법을 다 쓴 거야. 몰드를 소프트로 했다 하드로 했다 구멍을 뚫었다. 별짓을 다하다가 1년을 싸워가지고 결국에 1년 후에 애가 그냥 지쳐서 보청기를 걸더라구요. 속이 불나요. 애하고 애기는 해야 되는데 애가 아무 얘기를 한들 내가 크게 뻑뻑 거리지 않는 한 못 듣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좋게 보청기 좀 해, 와우 좀 붙여 그랬다가 안하고 있어 그럼 나중에 소리 뻑 지르면, 알아듣는다고! 엄마 왜 소리 뻑뻑 지르고 그래 그러고. 지금도 안 고쳐지더라고. (어머니9)

어머니 구술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이야기에서는 자녀가 어린 시절에는 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아이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만 한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어떻게든 자녀가 낯길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이 치료실 저 치료실을 다니며 전전긍긍하였다고 한다.

내가 일방적인 것 같아 항상. 일방적으로 그냥 강요만 했던 것 같아. 지금 생

각에. (어머니6)

우리는 키우는 거에 급급해서 애한테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만 했지, 개에 대해서 개의 의견을 받들고 뭐 존중해주고 물어보고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든 뭐 하나라도 자꾸 머릿속에 집어 넣어줄 그런 생각만 했지. 애한테 뭔가를 대화를 해서 뭐 토론하고 이런 생각은 감히 머릿속에 진짜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어머니3)

또한 어머니 구술자들은 자녀들에게 노력을 들이는 만큼 자녀가 건청인 자녀들처럼 잘 듣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녀가 귀만 안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일반학교에 가도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고 한다.

열심히 다니면 일반애가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선생님들도 얘기하고 언어치료도 돈 백 만원씩 들어서 다섯 군데 끌고 다니면서 막 시키고.. 그런데 세월이 한해 한해 지나갈 때마다 결국 부딪히는게 정상인은 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저한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어머니2)

다른데는 다 멀쩡하고 귀만 안들리기 때문에 일반학교를 다녀도 손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학교를 와서 놀러 왔었어요.(어머니10)

청각장애인 구술자와 어머니 구술자 중 한 가족인 한 쌍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청각장애인 자녀와 건청인 어머니가 서로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일반학교에 보낸 자녀가 생각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였고 공부도 잘 해서 학교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반면에 자녀는 자신이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회상하였다. 이는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다니면서 귀로 소리를 조금은 들을 수 있었고, 꾸준한 언어치료를 통해 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발음이 좋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가 당연히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고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 자녀에게서 학교생활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이전의 모습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인공와우 수술을 했어도 잘 들리지 않고,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었고, 친구들에게도 적잖은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학교생활을 하였다고 했다. 그리하여 어머니와 자녀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애가 의외로 적응을 잘 했어요. 하나가 공부를 잘했어요. 저도 뒤늦게 들은 건데, 하나가 쉬는 시간만 되면 복도에 나와서 창가에 앉아서 멀리 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생님이 얘기했나 어떻게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어머니10)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냥 있다보니까 어떻게든 지내게 되더라고요.(정하나)

어머니 구술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자녀의 장애에 대해 어머니들보다 아버지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는 또 다른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어머니들은 주로 장애를 가진 자녀들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거나 이들을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아버지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기까지 어머니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가 저를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완전히 외면하셨습니다. (김명성)

오히려 아빠는 좌절을 하고..둘째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남편이 더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어머니1)

참여자들은 장애를 가진 자신들을 위해 부모가 해준 경제적인 지원, 정서적 지원, 희생에 대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였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모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지 않고 이 학생처럼 나를 고아원에 팔아 버리고 도망갔으면 나도 아마 그 친구들처럼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워주고 희생해주고 힘들게 키워준 거에 대해 제가 배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김명성)

중학교 때 왕따 당했을 때 제가 울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 엄마가 차라리 내 귀를 주고 싶다 그랬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미안했어요. (서은혜)

정말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저도 없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를 이 청력으로 이끌어주신 분이요, 저를 지금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열심히 노력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하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모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청각장애를 그들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다(Kurtzer-White, Luterman, 2003)는 것을 기억하며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② 형제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구술자 8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한 청각장애인이었다. 청각장애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건청인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은, 청각장애인들은 그들의 가족보다 같은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들과 더 가까운 관계와 결속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은 그들의 건청인 형제들과 서먹한 관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적인 대화만 할 뿐 깊은 소통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장애인 구술자 김명성은 건청인인 여동생과 서먹한 사이로 지내며 여동생이 자신을 부를 때 ‘오빠’ 대신 ‘저기요’라고 부르며 둘 사이에 큰 벽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조사랑 역시 남동생과 친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상적인 대화 몇 마디만 나눌 뿐, 속마음을 이야기하거나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고 하였다.

동생과 둘이 거의 대화를 안 하는데...동생이 저를 완전히 남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저기 이것 좀 먹어’라고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옛날에..(김명성)

동생이랑 친한 건 아니에요. 동생이 여자였다면, 어릴 때 제가 놀러가자 사라가자 이러면 남동생은 싫어 이러잖아요. 만약 여자에였으면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지냈을 텐데...그게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조사랑)

4) 학교생활

①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

청각장애인 구술자들 중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반학교에서 통

합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학교의 전체 학생 중에서 혼자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한 특별한 규칙은 없었으며, 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지냈다고 한다. 일반학교 수업시간의 약 3분의 2는 듣기 위주의 수업이라고 한다. 듣기 위주의 수업을 받아온 청각장애인들은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는 친구의 필기내용을 보고 받아 적는 것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공부할 때는 거의 독학으로 했어요. 못 들으니까. 교과서 보고 참고하고, 수업 내용 다시보고, 수업 할 때는 내가 친구 옆에 앉아서 친구가 필기하는 거 보고 베끼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박하늘)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으면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들이 같은 반 친구들의 따돌림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단지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을 어눌하게 한다는 이유로 ‘병어리, 바보’ 등과 같이 언어적인 놀림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였고, 얼굴에 지우개 가루를 뿌린다던지 신체적인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일부러 따돌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단절이 있으니 이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주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가 안 들리면 친구들이 지우개 뜯어서 던지고, 청각장애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 있잖아요 ‘병어리’ 굉장히 기분 나쁜 짱아요. 병어리, 귀머거리, 바보, 멍청이 그런 단어를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김명성)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사가 듣기 시험 대본을 제공해준다던지, 성적이 좋지 않아도 벌을 주지 않거나, 격한 신체활동에서 제외시켜주는 등의 눈에 띄는 배려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를 시기하고 질투심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었고, 이러한 친구들을 주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따돌림을 당하도록 반 분위기를 조성하여 홀로 외딴 섬에 와 있는 듯 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였다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왕따 같은 걸 많이 당했어요. 애들이 일부러 왕따 시킨 건 아닌데 그냥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들리니까.(최성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와 다른 학습 환경과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제 장애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어요.(조사랑)

② 친구관계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학교생활을 할 때 각 학년마다 자신과 함께 다닌 친구가 한명씩만 있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의 특성상 다수와 함께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한명의 친구만 사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냥 친구 한 명씩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명, 중학교 때 한명, 고등학교 때 한명..(조사랑)

교실마다 꼭 그 교실만의 단짝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보통 마음을 털어놨어요.(정하나)

학기 초 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와 도움을 준 친구도 있었고, 첫째에 짝이 되어 이들을 계속 도와준 친구도 있었다. 이 친구들은 청

각장애인들에게 평생 고마운 친구로 기억되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못 듣거나 이럴 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봐야할 때 가장 가까운 애가 뒤에 앉은 애였어요.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었거든요. 개가 착해가지고 원래 다른 친구들이랑 더 어울릴 수도 있었고 저 도와주기 귀찮았을 텐데 잘 도와줬어요. (조사랑)

제일 친한 친구 한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제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잘 도와주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줬나면, 제가 잘 못 알아들으면 그 친구가 ‘익현아’ 하면서 저에게 잘 설명해주고, 지금은 그 친구가 장애 관련 전공을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박하늘)

그 친구가 일기를 잘 써서 그때 제가 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듣기도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일기를 잘 쓰기 때문에 일기를 빌려서 보고 쓰고 그랬어요. 저도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그 친구랑 일기 교환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 친구 덕분에 지금 글을 잘 쓰게 되었어요. 그 친구랑 편지를 보내다 보니까 그때 문장력이 좋아졌어요.(이나라)

③ 교사의 존재

청각장애인 구술자는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가깝게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교사들 중 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며,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심리적으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교사도 있었다. 또한 이들의 장점을 함께 찾아줌으로써 진로를 찾아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구술자들에게 도움을 준 교사들을 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제가 좀 친구보다는 선생님들이 저를 더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중1때 선

생님께서 제가 그 때 글 쓰는 것을 보시고 백일장 나가봐라 이런 권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처음에는 작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조사랑)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인데, 내가 귀가 안 들려서 힘들었을 때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힘든 거 있냐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때 귀가 안 들려서 힘들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방 배치도 바꿔 주셨고, 앞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때 반 학생들이랑 하늘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청각장애 친구들과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하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박하늘)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사도 있었지만, 때로는 오히려 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하는 교사도 있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 다른 건청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는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너무 힘들게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만 호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들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성은)

5) 전공 및 업무의 특수성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의 대학교 전공과 직장 업무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분야에서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명은 사회복지학을, 2명은 신학을, 1명은 특수교육학을 전공하였고, 졸업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에서도 교사로 꾸준히 봉사하고 있는 구술자도 있었는데, 이렇듯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사회에 도움을 주

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6) 성별의 차이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의 성별에 따라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것들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 거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운동을 즐겨 하는데 보조기구를 착용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한다. 두상에 부착되어 있는 인공와우 보조기구와 귀에 끼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 땀으로 인해 기계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거친 신체 활동을 하며 기계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쳐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한 남자 구술자는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춘기 시절, 여자들은 머리카락이 길어 보조기구를 가릴 수 있어서 부러움을 느꼈다고 회상하기도 하였다.

남자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활동적이니까 보청기가 인공와우보다는 맞는 것 같고..남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와우 하는 것을 조금 창피해해요. 왜냐하면 남자 머리가 짧잖아요. 미용실에서 잘못 자르면 수술 흉터가 보이고, 이게 붙어 있으면 다들 보니까 창피하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길고 묶으면 안보이니까 괜찮아요. 여자들은 머리카락으로 가리고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김명성)

성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는 친구 관계에서 나타났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정적인 소통을 중요시하고 시기와 질투를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한 여자 구술자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가 참여자를 잘 챙겨주는 것에 대해 한 여자 친구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틀어져 친구들을 선동해서 이 참여자를 따돌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남자 구술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군입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거나 20대 초반에 자신의 친구들

이 군입대를 하여 관계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였다고 한다.

남녀공학에 다녔는데 남자애들보다는 주로 여자애들이..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랑 중학교 올라가면서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아이가 중심이 되어서 반 애들을 선동하더라고요. (조사랑)

대학교 2학년 가을 때부터 남자애들이 거의 반 정도 다 군대에 갔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남자인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여자이고. 나도 남자애들처럼 휴학을 해야하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명성)

지금은 친구들이 거의 다 군대가서 그냥 몇 명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박하늘)

3. 정체성의 변화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건청인 청소년들처럼 주로 학령기 말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들은 사춘기에 건청인 학생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과 더불어 장애라는 요인을 부가적으로 더 고민하게 됨으로써 정체성 확립을 하는데 더 많은 혼란을 겪었다고 회상하였다. 학령기 초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이후, 학령기 말부터는 ‘그럼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청각장애인이지?’ 등의 한층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학교생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에도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하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계속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확립하고 재확립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중·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음악도 듣고 음식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할 때 그냥 잘 듣고 주문을 하는데, 저는 주문하는 것조차 하나하나가 어렵고 듣지 못하니까 그때 차이점을 심하게 느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정하나)

청각장애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기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성인기에 대학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나는 누구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살아왔다고 하였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혼란을 겪고, 재확립하는 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이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에 혼란과 불안을 앓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속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결국 자신과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집단을 찾게 되며 비로소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단계에 나아간다. 이것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Melick의 이론에서 ‘아웃사이더’의 단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교 졸업반 되면서부터 똑같은 장애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날짜도 기억해요 그때 처음으로 저 같은 장애인 3명 만났어요. 대학교 오기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는데, 대학교 와서 청각장애인 두 명을 만났는데, 그 중 한명이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주변에 많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언니가 성격이 되게 활발하고 수화도 모르는데도 거기서 잘 지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만나보고 싶다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최성은)

너무 이렇게 건청들의 세계에서 제가 끼지를 못하니까 농 세계에서 수화하시는 농 세계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쯤에 농아인 협회에서 수화를 배우고, 농학교에 방문해서 농인 친구들을 알게 되었어요. (조사랑)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자신과 같은 청각장애인들을 만나 청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정체성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으며, 구화로 건청

인들과 생활하며 살아온 자신들에게 수화를 사용하며 농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성규(2011)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화에 기초한 문화적 정체감 형성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이며, 언어가 다르면 문화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청각장애인이더라도 사용하는 주 언어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문화권이라고 여기며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구술자들은 자신들이 건청인의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세계에게도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에 큰 상실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시금 꺼내어 고민하며 정체성에 혼란을 또 다시 겪기도 하였다.

농아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를 따라 농아학교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보면 같은 청각장애인이면 반가워해야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완전 낯설어요. 막 쳐다보면서 수화로 막 수군거리면서..(김명성)

고등학교 때 건청인과 농아인이 함께하는 1박2일 캠프에 갔었어요. 제가 수화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건청인들하고 대화도 잘 되는게 아니고 하니까, 이쪽에도 못 끼고 저쪽에도 못 끼고 혼자 완전 혼자 있게 된거예요. 건청인 그리고 뭐 농인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얘기해보면 완전 농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조금 차별 방식, 글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구화만 써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수화를 배워서 수화로 자연스럽게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문화에 속해 있다고 말 할 수는 없거든요. 저랑 다른 것 같아요. (조사랑)

4. 긍정적인 적응 요인

1) 적극적인 행동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세상을 살고 있었다. 수동적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행동하였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였다.

제가 직접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글을 남겼는데, 거기 선생님이 한번 방문해라 그래서 농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조사랑)

친구 만나면 일부러 조금 더 활발하게, 행동도 더 오바스럽게 한다고 해야 하나. 더 재미있게 하고, 말도 빨라지고 과장하면서 말하고...(중략) 나같은 장애인 만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어떤 남자애를 만나서 그 아이한테 수화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처음으로 저 같은 장애인 3명 만났어요. (최성은)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먼저 다가가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을 먼저 밝힘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이 그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받아줬어요. 나는 끝까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고 그런 용기를 힘들게 내니까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요. (김명성)

저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처음에는 어색한데 그 다음에는 장난도 치고. 중학교때부터 이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 장애 있다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말 걸었어요. (서은혜)

지내다 보면 한두 명씩 다가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안 놓치거든요. 저한테 분명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주는 거니까 그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그러다보면 어느새 단짝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정하나)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입이 굳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발음 연습을 하며, 독서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문해력을 길렀다. 청각장애인들은 발음 연습을 꾸준히 해야지만 좋은 발음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꾸준히 발음 연습을 하였다.

제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발음 연습을 따로 해요. ‘엄마 이거 발음 이렇게 하는거 맞아?’ 하면 엄마가 가르쳐 주고, 엄마가 없으면 남동생한테 물어봐요. 요즘도 지하철에 타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 입모양을 보고 연습을 해요.(최성은)

한 청각장애인 구술자는 자신을 놀리고 따돌리는 친구들에게 장애로 인해 우습게 보이는 것이 싫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며, 또 다른 청각장애인 구술자는 수업의 내용을 잘 따라가기 위해 꾸준히 독서를 하며 문장을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반에서 성적이 중상위권에 속하였다.

장애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목표를 일류대학으로 했어요. 학교 선생님께 질문하려고 복도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무섭대요...사람들이 내가 장애 있다고 우습게 보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어요..(중략) 그래서 열심히 하고, 지독하게 잘하려고 해요(서은혜)

비가시적인 장애이기 때문에, 구술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청각장애인의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자신의 장애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은 농인사회의 지도자 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청각장애인에게서 볼 수 있는 특성이다(황진옥, 2013).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요, 근데 얘기들은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도 뮤지컬 할인 되는 쿠폰을 받았으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보여서 못 본다고 말했어요.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려서 못 본다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면 ‘한국영화 봤니?’ 그러면 저는 한국영화는 안 들려서 못 본다고 설명을 해요.(조사랑)

저는 오히려 장애에 당당하기 때문에 청각장애에 대해서 당당해요. 제가 심지어 어떤 모임에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거기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뭐부터 먼저 말했냐면 저는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게 되면 약간 불편한 감이 조금 있으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정하나)

초,중,고 시절에는 여럿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비록 한 명일 지라도 소중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해요.(조사랑)

2) 긍정적인 마음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술자들이 처음부터 희망을 가지고 장애인으로써의 삶에 적응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슬픔, 불안, 실패 등 장애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 이상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복지, 특수교육, 신학 등의 학문을 배우고 있었다.

옛날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내가 너무 슬프다. 나 너무 불쌍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앞으로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면 되는데 왜 여기 갇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만 힘든 거 아니고, 보면 저 같이 힘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괜찮아요.(조사랑)

청각장애인이지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귀가 안 들리지만 눈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이나라)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청각장애에 의한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좋은 점을 유머로 승화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이러한 특성은 청각장애인인 자신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다.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요.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하면 제 보청기가 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만지는 척 하면서 그걸 끄고 ‘알았어, 알았어’ 그래요. 그런데 보청기 껐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호호호 (최성은)

도서관에서 공부 할 때 시끄럽잖아요. 그럼 보청기를 빼요.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천둥번개 소리, 코고는 소리 안 들려요. 좋은 점도 있어요. 복지카드가 있으면 지하철이 무료고 비행기도 할인을 받아요.(조사랑)

공부할 때 보청기 빼고.. 시끄러운 교실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고3 친구들이 부럽대요.(서은혜)

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복지관에 엄청 다녔거든요. 밖에 놀러다니고.. 쉽게 말하면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에요.(정하나)

3) 보조기구의 활용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였는데, 김명성 구술자를 통해 보조기구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적응

과정을 잘 견뎌내야 보조기구를 통한 이점을 잘 활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명성 구술자에 의하면 어떤 청각장애인들은 보조기구 착용을 하면 활동하는데 불편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종종 착용하지 않아 보조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은 보청기를 잊지 않고 계속 끼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보청기를 처음 착용했을 때부터 꾸준히 잘 적응해왔기 때문에 보청기를 자주 빼고 있었던 다른 청각장애인들보다 잔존 청력이 좋다고 하였다.

보청기는 한번 사고 바로 훈련을 몇 년 동안만 잘 견뎌내면 잘 들을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 소리와 지하철 소리, 그리고 버스 기다릴 때 '370번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김명성)

보조기구를 착용했다고 바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보조기구를 착용한 후 끊임없이 소리를 듣는 청능 훈련을 하고 목소리를 잘 낼 수 있는 발화 연습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청능 훈련과 발화 연습을 꾸준히 잘 하였기 때문에 건청인인 연구자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4) 수화의 사용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모두가 구화를 사용할 줄 알았으며, 한명을 제외하고 수화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청각장애인들의 모임을 통해 수화를 배웠고, 수화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수화만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과도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한다. 수화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수화만을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세계에서 소외를 당하였으며, 수화를 배우고 난 이후부터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때 훨씬 정확하고 깊은 내용

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수화의 사용은 청각장애인들의 정체성 형성에도 관계가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배우기 전과 수화를 배운 후 그들의 정체성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건청인 가족

탄력성의 개념을 소개한 Werner(1990)의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은 예외 없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아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봐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구술자들에게도 그들이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자신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준 지지자들이 있었다.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가족 구성원 중 누구와 가장 가깝게 지내냐는 질문의 대답이 대부분 ‘어머니’였다. 이에 구술자들은 어머니들과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든든했어요. (서은혜)

어머니는 제가 학창시절에 고민이 들면 제일 먼저 털어 놓는 분이셨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공유해서 가까운 것 같고..(정하나)

엄마는 내가 청각장애라는 걸 알고 언어치료, 여러 교육, 또래 비장애인들에게 뒤지지 않게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반면 아빠는 내가 청각장애라는걸 인정 못하시는 것 같아요.(이나라)

우리 딸이 나를 바라봤을 때 가장 버팀목이죠. 엄마 없으면 안 된대요.(어머니1)

청각 손상의 초기 진단과 초기 개입 서비스는 자녀의 긍정적인 결과와 상호 관련이 있다(Pressman et al., 2000; Moeller, 2001). 어

머니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기관을 통해 자녀들에게 구화를 가르쳤으며, 같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유대관계를 맺었다.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낸바가 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다닐 때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고, 선생님 입모양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자녀들이 학급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내가 교육청에 편지를 써서 장장 몇 장의 편지를 써서 저는 이 학교에 꼭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 언어치료 지도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매일 일지를 썼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반응한다(어머니10)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한 것을 잘 어울릴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할 때 미숫가루를 큰 통에 담아가서 그것을 먹으면 애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런게 좋잖아요. 아니면 생일파티를 성대하게 해준다든지. 치킨, 피자, 김밥 차려놓고 애들 불러놓고 한다던가. 아니면 교통 안전지도 하면서 선생님들께 잘 부탁하는 식으로. 어린 마음에는 엄마가 교통 안전지도 하고 있으면 뿌듯한 거예요. (조사랑)

학교에서 학습적으로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예습 시키며, 별도의 학습지로 학습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음 연습을 시키며 자녀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켰으며, 일부 부모는 자녀가 다른 또래 아이들에게 뒤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였다고 회상하였다.

저는 계속해서 구화를 엄마한테 배웠거든요. 엄마 입에 직접 손을 넣고 혀도 한번 만져보고 입에서 바람 나오는 것도 배우고, 응 할 때 코도 한번 만져보

고 했었거든요. 엄마도 직접 배운 적이 없었는데 계속 가르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부모님이 많이 없어요.(최성은)

어머니가 나무 젓가락 입에 물고 목젓 대고 ‘파’ 하는 연습 시켰고, 배에 힘주고 그런 것 가르쳐주셨어요. (이나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때문에 멀리 30분 떨어진 곳에 가서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언어치료 받았어요. 혀놀림 같은거, 그리고 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발성연습하고, 돈이 많이 들었지만 덕분에 지금은 말을 잘 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고맙고, 어머니 선택이 좋았고..어머니가 강하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아무래도 또래 친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항상 도와주면서 동행해 주셨고, 다른 부모님하고 다르게 굉장히 철저하게, 어떻게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잘 도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박하늘)

구술자 어머니들의 이러한 지원은 이들이 건청인 어머니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청인 세계에서 건청인 어머니를 두었다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었다.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서 실밥 풀고 해야하는 것을 필담으로 했는데, ‘실밥’ 이렇게만 얘기해줘서 엄마한테 물어봐서 같이 치과 가서 어머니가 통역해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면 일반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니까 미리미리 말 연습하고 했어요.(이나라)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자녀의 발달이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자녀가 자기의 발달속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며 그에 맞는 지원을 해주었다.

원래 학교는 8살 때 가잖아요. 저는 9살 때 갔어요.(서은혜)

우리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원래는 19살, 고3이에요. 내가 초등학교1학년을 두 번 보냈어요.(어머니2)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머니 구술자들은 이들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 없을 때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더 열심히 양육하려 하였다.

우리 아들이 자기를 하나의 인격체로 독립할 수 있겠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조금씩 노력중이고.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내가 만약 죽는다면 우리 아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희망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 주는 것, 그걸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머니2)

저희가 없을 때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됐으면 하는 게 제 희망이에요.(어머니1)

6) 청각장애를 가진 형제

비슷한 연령에 같은 장애를 가지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것은 청각장애인들에게는 큰 힘과 의지가 되는 특성이었다. 연구의 주 참여자 중 최성은과 최예은은 자매이고, 최성은 선천적인 청각장애인, 최예은은 후천적인 청각장애인이다. 이들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이자 지지자였다. 특히 함께 수화를 배우게 되면서 부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영역과 이야기가 늘어나면서 서로가 더욱 가까워졌다고 한다. 참여자 중 정하나도 청각장애인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청인인 언니보다 청각장애인인 여동생과 더 친하게 지냈으며, 가족 구성원 중에서 여동생과 가장 친하다고 하였

다.

여동생도 같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와 고민이 있잖아요. 서로 공유하면서 얘기를 해요. 가족 중에서는 언니보다는 여동생하고 더 가깝게 지내요. 동생이랑은 수화랑 같이 섞어서 이야기해요. (정하나)

남동생도 있는데, 비장애인이예요. 그래서 공감대 형성이 잘 안돼요. (중략).
예은이한테는 별별 이야기를 다해요. 깊은 대화는 예은이하고만 많이 해요. 대화의 내용이 학교에서 만나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하거나 교회 안에서 그런 대화만 하니까 공감대 형성이 돼요. (최성은)

7) 교육의 경험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현재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이수한 청각장애인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고 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한 이력이다. 참여자들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노력, 가족의 지원, 경제적인 뒷받침, 주위 사람의 권유 등의 요인들에 의해서이다. 청각장애인들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 후 다니게 되는 직장은 공장이었다. 청각장애인들은 대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수준이 대단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진학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통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건청인들은 대학 진학과 등록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알게 되는 것과 달리, 대학 진학 및 등록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대학교에 진학하여 건청인들과 대학생활을 한 것은 청

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저희 농아인들은 대학을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보다 대학교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아학교 선생님들이 물어 보잖아요 너 졸업하면 뭐 할거니 그러면 농아인들은 대부분 대학에 갈 거라고 안하고 공장 갈 거야 공장, 그래요. 그런 생각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생각으로 공장에 들어갔다가 공장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때 대학을 가야겠다 늦게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 하는 거죠. (김명성)

일반학교에서 건청인들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은 경험들도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이 건청인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서 적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 모두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청인들과 통합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참여자들은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끝까지 받았으며, 이때 힘들었지만 적응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재 대학교에서 건청인들 속에서 함께 대학 생활을 하거나 직장에서 건청인들과 함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이전의 학교에서의 경험들이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8) 사회 기관의 도움

청각장애인 구술자들은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복지관 또는 교회를 통해 사회적인 지원을 경험하였다. 김명성 구술자의 경우, 교회를 통해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교회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 받았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참여하면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00교회 대학부에서는 농아인을 위해서 설교 통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타 기관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하죠. 교회를 다니는 농아인은 편찮아요. 교회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나는 공장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대학교로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 주니까 상관없는데..(김명성)

어머니1의 경우 복지기관을 통해 자녀가 많은 도움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복지기관의 선생님들을 통해 청각장애인 자녀에 대한 조언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볼 수 없는 자녀에 대한 면들을 파악하고 지원해줌으로써 자녀가 긍정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한다.

복지관 선생님이 수영이를 위해서 제빵 배우는 데를 빨리 섭외를 해야겠다고. 많이 밝아졌다고.(어머니1)

9) 과학 기술의 발달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은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접하게 되고 생활에 도움을 얻게 된다. 특히 휴대폰 문자 사용을 통해 주위 사람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편해졌으며,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핸드폰에 적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속마음을 문자나 카톡으로 다 말할 수가 있는데..(김명성)

연구자가 난청인 가족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곳에서 다

른 가족 캠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청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인해 불편하게 느끼는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소개하고 판매자들이 그것을 홍보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에 소개된 것 중 하나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휴대폰 화면에서 글자로 변화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기기 중 하나는, 집에 청각장애인이 혼자 있을 때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인종이 울릴 때 불빛이 반짝이며 누가 왔음을 알려주는 기기였다. 그날 프로그램 시간에 연구자가 소개 받은 기기들은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기 중 극히 일부였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 통합적인 요인

어머니 구술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 부모의 노력, 아이의 노력,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가 잘 성장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부모가 노력을 해도 청각장애인 자신이 그 노력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부모도 잘해야 되지만, 아이들도 따라와줘야 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아이들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여건 없이는 아이들을 아무리 부모가 양육하고 싶어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는 되고 경제적인게 있는데 아이가 안 따라와주면 어쩔 수 없는거죠.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정말 아이도 잘 케어하고 부모도 그 아이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어머니1)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노력 여부에 따라 이게 많이, 변화 큰 변화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어머니10)

이것도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없이는 더 무지해지는 것 같구요. 교육을 함으로써 애들한테 어떠한 기여를 하면 주는 것 만큼 애들은 크다라는 생각을 해요.(어머니2)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대 청각장애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정체성 변화와 적응을 이룬 경험에 대해 질적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및 해석한 연구이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자료들을 통해 참여자들을 판단 혹은 평가하기보다 참여자들의 편에서 그 관점을 옹호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가진다(조용환, 1999). 이 장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들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앞서 제시한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며,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연구의 결론

첫째, 청각장애인들은 청각장애를 병리적인 진단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청각장애인은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였으며, 건청인들과 다르게 청각장애인들만의 정체성 형성 단계가 나타났다. 건청인들의 경우 연령에 맞춰 청소년기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는데, 청각장애인의 경우 연령에 맞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더불어 의사소통 방법, 가정과 학교생활, 정보 습득 등의 요인들을 통해 정체성 변화가 나타났다.

비가시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이 연구자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불편함, 어려움,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오해 속에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는 비가시적인 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도 일반인으로도 여겨지지 않는 경험을 하였으며 이때 정체성의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청각장애인은 소리로 소통하는 이 세상에서 건청인들과의 소통

의 단절을 경험하고, 잔존청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노화로 인해 주위 사람들의 입모양이 변화하면서 입모양을 읽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으며, 정보의 부족으로 고집이 세다는 말을 들으며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과 같은 외로움, 허전함, 불안함의 감정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성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조기구 착용에 대한 외형적인 차이와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남자와 감정적으로 민감한 여자의 특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많은 건청인 부모들은 청각장애인 자녀들에게 인공와우 또는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를 제공해주고 그 후로는 자녀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을 보이며, 정작 청각장애인들의 마음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것에 대해 어머니 참여자들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였으며, 자신이 자녀의 청각을 회복시키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만 몰두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청각장애인의 형제 관계는 이들이 건청인이나 청각장애인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형제가 건청인인 경우 의사소통의 한계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친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청각장애를 가진 형제가 있는 경우 서로 의지를 하고 가장 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주 참여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성장 하였는데, 이들은 학교에서 유일한 청각장애인인 경우가 많았고 이들에 대한 별다른 학교 규칙이 없었고 교사의 재량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억이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친구와 직장동료를 사귄 때 한꺼번에 다수

와의 소통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창시절 친구가 한 학년에 한 명씩만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 이들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사가 있는 반면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교사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청각장애인들의 대학교 전공과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을 때 공통적인 특수성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관련 공부를 하고 있었고,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쳐 청각장애인은 발달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 안에서 정체성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여러 보호 요인이 탄력적으로 작용하며 긍정적인 사회 적응을 이룬 연구 주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적응에 대해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연구 주 참여자들은 성장하면서 여러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소리로 소통하는 세상에서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다. 청각장애인의 적응과정을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들은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주 참여자들은 인공와우와 보청기와 같은 보조기구를 착용하며 지냈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수화 사용이 가능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의 세계에서 의사소통 시 수화 사용 여부는 정체성과 농문화 등의 요인들과 얽혀있었다.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연구 참여자들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점은 이들은 사회적응을 이루기 위해 많이 생각

하고 고민하며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목적을 부여하여 그것을 꾸준히 이루어나갔다는 점이다.

주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게 한 사회적인 차원 중 첫째는 가족구성원 중 부모가 건청인인 경우 정보 수집, 건청인들과의 관계에서의 다리역할,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 자녀의 긍정적인 사회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주 참여자의 형제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 형제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진학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주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아직 대학교 교육을 받고 있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일반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었다. 청각장애인들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보조기기들을 접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고, 이들을 통해 건청인들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 주 참여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 경제적인 여건, 청각장애인 본인의 노력, 이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 연구의 의의

첫째, 발달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20대 청각장애인들의 성장과정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발달을 이루어왔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를 찾아내고 분석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인 개인의 차원에서 정체성 형성과 변화, 긍정적인 사회적응을 이루게

한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청각장애인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같은 고민과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된다. 이들은 결국 ‘수화’라는 언어를 통해 소통을 하게 되고, ‘수화’를 사용하는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수화를 사용하는 집단으로써의 정체성 안에서도 그 특성에 따라 청인중심의 정체성, 주변 정체성, 몰입 정체성, 이중문화 정체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는 청력손실 정도, 시기, 주변 환경 등에 의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각장애인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청각장애인이 성장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을 하는데 일반인들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것과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 나간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이러한 시간의 소요와 마음 속 상처를 줄이고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의료적 관점으로만 분석하거나 사회문화적 관점으로만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상호작용 관점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바라보고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이 연구를 통해 가족의 차원에서 부모교육적인 의의를 제공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자녀를 기르는 건청인 어머니들은 청각장애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장애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어머니들은 장애를 개인적 관점으로 이해하며 자녀의 신체적인 결함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사회적인 관점으로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길 바라며 자신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과 지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건청인 어머니들은 청각장애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들은 청각장애인 자녀를 의료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며 청각장애인이 보조기구(인공와우,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언어치료를 받으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각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보조기구 착용과 언어치료 등의 병리적인 해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들의 사회적응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였다. 청각장애인의 부모는 더 좋은 의료기술을 찾거나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나서는데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 또한 청각장애인 자녀와 더 깊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화를 배움으로써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화는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더 풍성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언어가 될 것이다.

넷째, 이 연구를 통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특수교육 또는 통합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통합교육은 최근 정상화의 원리¹⁾ 및 완전통합 등의 움직임 속에서 가속화되었다(이준우·김연신, 2012). 그러나 통합교육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청각장애학생들은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다시 특수학교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늘

1) 정상화의 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 장애나 기타 불이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불평등하지 않은 환경 및 생활 방식을 제공해 주기 위한 원리이다. 스웨덴의 니르제(B.Nirje)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볼프 펜스버거(W.Wolfensberger)에 의해서 장애인 서비스의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정상화 원리는 특수교육에 적용되어 최소 제한 환경(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LRE)의 개념을 탄생시킨 촉매적 역할을 하였다. (출처: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어나고 있다. 통합교육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각각의 체계에서 청각장애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이 필요한지 재정비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각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이 연구를 통해 사회적인 차원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애를 손상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disability'로 이해하기 보다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special needs'로 이해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여야 한다. 사회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장애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적으로 가져야 한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청각장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이차적인 장애로써 적절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려와 지원은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체계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 연구는 청각장애인만의 이야기를 통해 일방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이해하고 해석한 연구가 아니라, 청각장애인과 함께 살아온 건청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음으로써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더 강화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이들이 속해 있는 문화 등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청각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문화 등의 맥락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것에 대한 의의를 가진다.

2) 연구의 한계

첫째, 청각장애인은 내부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존재하는데, 이들

이 사용하는 주 언어에 따라 정체성이 다를 뿐 아니라, 수화만을 사용하는 농 사회에서 성장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청각장애인의 삶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건청인인 청각장애인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부모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도 청각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이야기 또는 부모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본인은 건청인 자녀(코다)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각장애인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셋째, 청각장애인의 가족 중 어머니의 이야기만 들어보았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 와 어머니는 서로 같은 상황에서 장애에 대해 수용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이야기 뿐 아니라 청각장애를 가진 형제와 함께 살고 있는 건청인 형제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면 청각장애인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으리라 예상되며, 이에 더 풍부한 연구가 되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서.
- 구서진(2006). 청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 농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진(2006). 한국의 농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미옥(200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4(단일호), 99-126.
- 김미옥·이미선(2013).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2), 155-177.
- 김성하(1999). 청각장애인의 취업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 김진우(2007).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의의와 한국사회에의 함의. 한국장애인복지학 6, 183-209.
- 김현주(2002). 청각장애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희태(2012). 자유선택활동에서의 유아들의 의사소통의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16(4), 303-326.
- 박귀메·이규식·권순우(2004). 청각장애 자녀의 인공와우 착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2), 93-114.
- 박정현(2012). 청각장애인 청년이 경험하는 비장애인과의 대인관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림·김은정·구명성·최성규(2015).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 교우관계와 정체감의 구조관계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239-262.
- 보건복지부(2011).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
- 송혜경·김정규·박찬영(2014). 인공와우 착용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자기수용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특수교육연구, 21(1), 131-150.

- 신중호(2001).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의 시사점: 비고스키의 장애론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1), 37-54.
- 오인혜·정은희(2011). 청각장애인 가족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409-435.
- 이규옥·한성희·박혜준(2010).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 본 가족의 성숙과 변화. *정서·행동장애연구*, 26(4), 137-163.
- 이순형·성미애(2012). *인간발달*. 서울: 한국방송대출판문화원.
- 이준우(2003). 한국 농 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4(4), 173-204.
- 이준우(2004). *농인과 수화*. 인간과 복지.
- 이준우·김연신(2012). *데프 앤 데프: 농인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 과주: 나남.
- 전가일(2013). *자유놀이에서 유아의 관계 맺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문교(2010). *청각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성향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성규·강태인(2000). 청각장애유아의 가정 환경, 의사소통 양식, 그리고 조기교육에 대한 소고. *난청과 언어장애*, 23(2), 155-171.
- 최성규·김선희(2005). 청각장애아동 부모의 청력상태에 따른 청각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양식 선호 성향. *특수아동교육연구*, 7(2), 27-51.
- 최성규·김수향(2011). 통합교육환경 청각장애 청소년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인식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2(1), 47-68.
- 최성규·이정우·박혜림·구명성(2015).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

- 령기 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의 구조관계 분석. 특수아동교육 연구, 17(1), 239-261.
- 한성희·박혜준(2004). 시각 손상 아동을 위한 기능적 시각 평가 도구 개발. 특수교육학연구, 39(2), 1-30.
- 황진옥(2013). 전문직 종사 농인의 정체성과 진로선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4(1), 91-112.
- Baltes, P. B. (1987). Theoretical propositions of life-span developmental psychology: On the dynamics between growth and decline. *Developmental psychology*, 23(5), 611.
- Baltes, P. B. (1997). On the incomplete architecture of human ontogeny: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foundation of developmental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52(4), 366.
- Bat-Chava, Y. (2000). Diversity of deaf identitie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5, 420-428.
- Baumeister, R. (1997). The self and society: Changes,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 R. D. Ashmore & L. Jussim(Eds.), *Self and identity*(191-217).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haw, M. L. (2002). *Children with disabilities*. Baltimore: Brooke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design and nature*.
- Brzuzny, S. (1997). Deconstructing disability: The impact of definition. *Journal of Poverty*, 1(1), 81-91.
- Chen, G. (2011). Narrative research on the identity of disabled people in Tibetan culture. *Annales Universitatis Paedagogicae Cracoviensis. Studia Psychologica*, (IV),

85-91.

- Chen, G. (2014). Influential Factors of Deaf Identity Development. *Electronic Journal for Inclusive Education*, 3(2), 5.
- Coplan, J. (1987). Deafness: ever heard of it? Delayed recognition of permanent hearing loss. *Pediatrics*, 79(2), 206-213.
- Dalton, C. (2011). Social-emotional challenges experienced by students who function with mild and moderate hearing loss in educational settings. *Exceptionality Education International*, 21(1), 28-45.
- Ferrell, B. R., Grant, M. M., Funk, B., Otis Green, S., & Garcia, N. (1997). Quality of life in breast cancer survivors as identified by focus groups. *Psycho Oncology*, 6(1), 13-23.
- Foster, S. (1989). Social alienation and peer identification: A study of the social construction of deafness. *Human Organization*, 48(3), 226-235.
- Gabel, S. L. (1997). A theory of an aesthetic of disability.
- Gibbons, E. M. (2015). Supporting Deaf and Hard-of-Hearing Students in the Schools. *Contemporary School of Psychology* 19, 46-53.
- Glickman, N. S., & Carey, J. C. (1993). Measuring deaf cultural identitie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38, 275-283.
- Goldberg, D. M. (1996). Early intervention. *Hearing Care For Children*. Boston: Allyn & Bacon, pp. 287-302.
- Harney, P. A. (2007). Resilience processes in context: Contributions and implications of Bronfenbrenner's person-process-context model.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4(3), 73-87.

- Jones, S. R. (1996). Toward inclusive theory: Disability as social construction. *NASPA journal*, 33(4), 347-354.
- Kitzinger, J. (1994). The methodology of focus groups: the importance of interaction between research participants.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6(1), 103-121.
- Knox, J. E., & Stevens, C. (1993). Vygotsky and Soviet Russian defectology. In *The collected works of LS Vygotsky* (pp. 1-25). Springer US.
- Kunnen, S. (2014). Identity development in deaf adolescents. *Journal of Deaf Studies & Deaf Education*, 19(4), 496-507.
- Lane, H. (1988). Is there a "psychology of the deaf"? *Exceptional children*, 55(1), 7-19.
- Lane, H. L. (1992). *The mask of benevolence: Disabling the deaf community*. Alfred a Knopf Inc.
- Leigh, I. W., Marcus, A. L., Dobosh, P. K., & Allen, T. E. (1998). Deaf/hearing cultural identity paradigms: Modification of the deaf identity development scal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3(4), 329-338.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9, 159-187.
- Marschark, M. (1993).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deaf children*. Oxford University Press.
-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4). Chasing the mythical ten percent: Parental hearing status of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4(2), 138-163.
- Moeller MP(2001). Intervention and Outcomes for Young Children Who are Deaf and Hard of Hearing and their families. In Kurtzer-White E, Luterman D, editors. *Early Childhood*

- Deafness, Timonium, Maryland: York Press.
- Moore, D. F. (1987). Factors Predictive of Literacy in Deaf Adolescents with Deaf Parents: Factors Predictive of Literacy in Deaf Adolescents in Total Communication Programs... Center for Studies i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Gallaudet Research Institute, Gallaudet University.
- Oliver, M. (1983).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1st ed.). London: The Macmillan Press.
- Oliver, M. (1989). The social model of disability: Current reflections.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Yearbook I*.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190–203.
- Oliver, M. (1990). The politics of disablement. Palgrave Macmillan.
- Oliver, M. (1998). Theories in health care and research: Theories of disability in health practice and research. *BMJ: British Medical Journal*, 317(7170), 1446.
- Olivia, G. (2004). Hear and now: how park and recreation professionals can hear the needs of the deaf community. *Parks & Recreation (Ashburn)*, 39(5), 54–60.
- Padden, C. A. (1998). The ASL lexicon. *Sign language & linguistics*, 1(1), 39–60.
- Padden, C. A., & Humphries, T. (1988). *Deaf in Americ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asnis, I. (1997). Selected Topic Of Interest, 1997: Cultural Identity and Diversity in Deaf Educatio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2), 72–79.
- Park, H. J., & Chung, G. H. (2015). A multifaceted model of

- changes and adaptation among Korean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4), 915-929.
- Parks, E. S. (2009). Deaf and hard of hearing homeschoolers sociocultural motivation and approach, *Work Papers of 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North Dakota Session*, 49.
- Pressman L, Pipp-Siegel S, Yoshinaga-Itano C, et al.(2000). A comparison of the links between emotional availability and language gains in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hearing loss. In: Yoshinaga-Itano C, Seedy A, editors. *Language, Speech,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Who are Deaf and Hard of Hearing; the Early Years*. The Volta Review 100.
- Reagan, T. (1990). Cultural considerations in the education of deaf children.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aspects of deafness*, 73-84.
- Salthouse, T. A. (2009). When does age-related cognitive decline begin?. *Neurobiology of aging*, 30(4), 507-514.
- Shogan, D. (1998). The social construction of disability: The impact of statistics and technology. *Adapted Physical Activity Quarterly*, 15, 269-277.
- Solomon, A. (2012). *Far from the tree: Parents, children and the search for identity*. Simon and Schuster.
- Spradley, J.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신재영 역(2006). 참여 관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inson, M., & Antia, S. (1999). Considerations in educating deaf and hard-of-hearing students in inclusive settings.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4(3), 163-175.

- Stokoe, W. (1960). Sign language structures.
- Stokoe, W. C., Casterline, D. C., & Croneberg, C. G. (1976). A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on linguistic principles. Linstok Press.
- Stucki, G. (200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a promising framework and classification for rehabilitation medicine.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84(10), 733–740.
- Thomas, D.,(1982). *The Experience of Handicap*. London: Methuen.
- Van Cleve, J. V., & Crouch, B. A. (1989). A place of their own: Creating the deaf community in America. Gallaudet University Press.
- Van Naarden, K., Decouflé, P., & Caldwell, K. (1999).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serious hearing impairment in metropolitan Atlanta, 1991 - 1993. *Pediatrics*, 103(3), 570–575.
- Vygotskaya, G.L.(1999). Vygotsky and Problems of Special Education.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0(6), 330–332.
- Vygotsky, L. S. (1993). The collected works of LS Vygotsky, Volume 2: The fundamentals of defectology (RW Rieber, & AS Carton, Eds., & JE Knox & CB Stevens, Trans.).
- Werner, 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 WHO (2011). World Report on Disability.
- Woodward, J. (1990). Sign English in the education of deaf students. *Manual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education*, 67–80.
- Young, A., Green, L., Rogers, K.(2008). Resilience and deaf children: a literature review. *Deafness and Education*

International 10(1), 40-55.

Zola, I. K. (1993). Self, identity and naming question: Reflections on the language of disability. *Social Science & Medicine*, 36, 167-173

Constructing identity as a 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 for twenty years of life

Suh, Hye M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that explores how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experienced changes of their identity throughout their life, and how they adjusted to the hearing world with their hearing impairment. Eight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who were in their twenties to thirtie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experiences of growing up as a person with hearing impairment.

The following questions are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e current study.

Research Question 1. How did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s' identity change throughout their life?

Research Question 2. What factors made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to adjust well in the hearing world ?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gathered participants through purpose sampling method and snowball sampling method. Eight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who were in their twenties, and 13 hearing mothers who had deaf children, were interviewed.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were the main participants of this study, and hearing mothers were the sub participants. The researcher used focus group interview and exclusive interview to collect data. The whole interview was recorded,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major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realized their deafness through medical diagnosis and through experiences from growing up.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and young adults with healthy hearing in their construction of their identity throughout their whole life. Living with the unseen disability,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grew up with the feelings of loneliness and anxiety. They kept on searching for their identity through the experiences they had in their family context, school and work contexts, and their relationships with others.

Second, the main participants lived as an active social participants while forming positive identity. They removed their thoughts of seeing themselves as deficient person. They made a fine adjustment in the hearing world through two factors; personal and social factors. The personal factors which includes making their own strategy, thinking positively, using assist device well, using sign languages, helped them to make good

adjustments. Also social factors which supported their adjustments, were parents' active support, academic achievement by graduating from college, experience of attending schools and working places with well-hearing people, and active use of the new technology.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re was no previous study that investigated identity and adjustment factors by looking at the growing process of Korean young adults with hearing impairment using a case study.

keywords : young adults, hearing impairment, identity, growth process, adjustment

Student Number : 2011-23703